

'밤의 전주, 역사를 걷다' 전주국가유산야행

전주시, 6월 6~7일 전주한옥마을·경기전·전라감영 등서 개최… 10주년 맞아 풍성한 프로그램 마련

조선왕조와 후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천년고도 전주에서 올해도 밤하늘 찬란하게 빛나는 국가유산과 전주의 문화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전주문화유산야행이 펼쳐진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달 6일과 7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전라감영 등 7개의 역사적인 공간에서 '2025 전주국가유산야행'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전주야행은 '밤의 전주, 역사를 걷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4개 공간에서 풍패지관과 오목대, 전주향교를 포함해 축제 공간을 넓히고, 조선의 역사에서 거슬러 올라가 후백제가 건국된 900년까지 다뤄며 역사의 범위를 확장해 더욱 깊이 있는 전주의 역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9개의 산설 프로그램이 첫선을 보이고, 기존 프로그램도 방문객들의 수요에 맞게 개편되는 등 완성도 높은 축제의 장이 꾸며질 예정이다.

총 8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야행의 핵심 프로그램은 △전원대왕배 씨름대회 △주제공연 '왕도의



2025 전주국가유산야행 포스터

를 만나다'를 꼽을 수 있다.

야행에서는 씨름대회와 주제공연이 유기적으로 펼쳐지며, 민속놀이 및 공연예술에 역사적 상상력을 접목해 전주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역사 활용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먼저 후삼국 시대를 뒤흔든 견훤 대왕의 기세를 계승하고 과거 명절날 마

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한판승부를 벌이던 정겨운 풍경을 재현한 견훤대왕배 씨름대회는 시민참여로 진행돼 축제의 흥을 돋울 계획이다.

또한 주제공연인 '왕도를 만나다'의 경우 씨름대회의 전개에 따라 후백제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용극이 중간중간 펼쳐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씨름대회에 서사를 더하는 것뿐 아니라 민속놀이와 공연예술을 접목해 후백제 왕도 전주의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한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야행에서는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행사장 일일) △객사야담(풍패지관) △향교괴담(작전명: 배기리/전주향교) △전라관찰사의 탄생(전라감영) 등 공간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는 참여자들이 전주의 국가유산을 누비며 견훤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곳곳에 숨어있는 견훤을 찾아 이야기를 듣고 모든 스탬프를 모은 참여자에게 특별한 야행 쿠포스가 제공된다.

'객사야담'은 오랜 시간 풍패지관을 지켜온 가택신(家宅神)으로부터 듣는 전주 역사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가택신으로 변신한 배우들이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변천사를 생생하고 재밌게 전달 예정이다.

여기에 전주향교에서 펼쳐지는 '향교괴담'은 기존 숭바꼭질에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더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향교의 정체성을 소개한다.

1884년 조지 포크가 전라감영에서 촬영한 사진 속 인물들을 재해석해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일상을 재현한 콘텐츠인 '전라관찰사의 탄생' 프로그램에서는 추리극과 조선시대 직업 체험, 전통놀이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전주국가유산야행에서는 △전문가 초청 역사 토크쇼인 '후백제의 왕궁, 야간산행' △풍납문을 무대로 펼쳐지는 국악 공연인 '뜻밖의 국악' △전주부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인 '전주사대문 부성길 투어' 등 역사적 상상력으로 기획한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전주시, 환경관리원 복무 점검·민관합동 단속 실시

전주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환경관리원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권역 환경관리원에 대한 복무 점검 및 예코시티 상가·서부신시가지 등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시는 탄핵정국 및 잠미대선으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행락철 맞이 환경정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지역권역 환경관리원 기��원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복무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 △안전복 미착용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 확인된 환경관리원 7명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했다.

또한 시는 지역권역과 대행권역의 취약지 등을 점검해 청소 수행 상태가 미흡한 장소 80여 곳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정리 및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6일과 27일 이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권역 환경관리원에 대한 복무 점검 및 예코시티 상가·서부신시가지 등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틀간 불법투기로 인한 거리 환경의 악화를 막고, 민연한 불법투기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완산시민경찰연합회(회장 성완오)와 함께 덕진구 예코시티 상가 일대와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6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에서 참석자들은 파봉 및 쓰레기 정비, 주위 상가 계도 등 추후 불법투기 예방 및 민원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권희성 기자

SPOT IN JEONJU 청년 슷품 공모전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전주 매력 알리고 참신한 로케이션 발굴

전주시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로써 매력을 가진 새로운 촬영 명소 발굴에 나섰다.

시와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SPOT IN JEONJU 청년 슷품 공모전'에 참가할 응모작을 접수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영화의 도시이자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는 전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참신한 로케이션을 발굴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부문은 △전주시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재치 있게 홍보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슷품 영상 △각종 영상물 촬영 배경으로 적합한 전주시의 덜 알려진 장소를 소개하는 슷품 영상 등 두 가지 분야이며, 영상물을 통해 지

역의 새로운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1팀(또는 개인)당 최대 2편의 작품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전주영상위원회 누리집(www.jjc.go.kr)에 게시된 공모 요강을 참고해 영상 파일과 제출 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에는 △대상(1편) 200만 원 △최우수상(2편) 각 100만 원 △우수상(5편) 각 40만 원 △장려상(10편) 각 20만 원 등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현장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을 찾아 고객 안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우범기 시장이 27일 지난해 11월 준공돼 위탁 운영중인 전주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모래내시장 내 주요 기반 시설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을 둘러보고, 실내외 시설의 안전과 고객 사용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 시장은 이날 생업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모래내시장 기반 시설인 위탁 시설인 주차장과 올해 보수공사 예정인 노후 부분 5·6구역 아케이드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민



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내 문화 행사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을 넘어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생활 터전이자,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통시장별 다양한 특화행사·축제를 준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전주시안경사협회, 취약계층 아동 안경 지원 협력

전주시가 전주시안경사협회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시력 보호를 위한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와 전주시안경사협회(회장 김태형)는 27일 시력 교정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안경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

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안경사협회 소속 사업 참여 안경원이 안경 구입비 일부를 후원해 대상 아동에 무료로 안경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드림스타트 아동 중 교정 전 시력이 0.5 이하여서 안경 지원이 필요한 아동 60명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술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